

Ted Hildebrandt 박사, 구약의 역사, 문학 및 신학, 강의 25

© 2020, Dr.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 역사, 문학, 신학 과정 25번 강의인 Ted Hildebrandt 박사입니다. 다윗이 밋세바와 함께 죄를 짓고 솔로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수업의 시험은 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월요일 9:00-11:00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월요일 9:00-11:00에 최종 시험을 보러 왔어요.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검토 세션에서 Grace는 금요일 밤 6시부터 8시까지 이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검토 세션을 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밤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과 화요일 밤 6시부터 8시까지 여기에서 그녀는 검토 세션을 위해 방을 예약했습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았고 밤새도록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 앉아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잠들지 않을 것이다. 가르치다 보면 잠들기 힘들다. 하지만 아프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 질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또한 내가 까다롭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약의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개념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도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추수감사절 전 화요일에 수업을 빼먹었고 부끄럽게도 아직 일주일이나 남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퀴즈를 풀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내일 저는 9시부터 2시까지 제 사무실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부끄럽게도 건너뛴 화요일 퀴즈를 아직 치르지 않으셨다면, 들어와서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특별한 거래일 뿐입니다. 그게 모두에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 아직 복용하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후에는 끝났습니다. 나는 길을 가고있다. 가져간 다른 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중 일부가 추가 크레딧을 위해 수행한 필사본에 관한 것입니다. 마감일은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미 완료했다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추가 학점을 받고 싶다면 구제를 요청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을 위해 제가 10개 정도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했다면 끝입니다. 당신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는 당신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고 시도해 보고 싶다면 이러한 필사본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charis)*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코스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메이크업은 수요일에 해요.

또 다른 점은 , 오랜만에 책상을 치웠고 여기에 퀴즈가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적힌 채 퀴즈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Blackboard 로 이동하면 Blackboard에 성적이 나열됩니다. 여러분은 Blackboard에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지만 나열됩니다. 퀴즈를 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퀴즈를 풀었다는 사실을 알겠지만, 퀴즈에 이름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경우라면 와서 나를 만나면 우리는 어느 것이 당신의 것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중 질문이 있으신가요?

목요일에 퀴즈가 있고 월요일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결승전은 포괄적이지 않을 것이며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위한 학습 가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목요일 오후 늦게 가르치고 목요일 밤에는 학습 가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학습 가이드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주말 동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아침에 스터디 가이드가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시험은 지난 시험부터 지금까지 또는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험은 월요일 9.00-11.00입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아버지,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 삶에 것들을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지나가고 우리는 아프고 일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주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압력이 가해지는 이 학기에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 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공부가 당신에게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모든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예술, 역사, 음악 , 과학,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당신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읽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밋세바와 함께한 다윗의 죄 검토

우리는 다시 David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다윗과 밋세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밋세바와 다윗의 죄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왕들이 여기 요르단에서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요압과 소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밋세바와

바람을 피운다. 그는 헛 사람 우리아를 다시 불러냅니다. 우리는 유혹의 과정과 남자들이 얼마나 자주 눈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외모”와 의도, 욕망에 따른 행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대해 밧세바를 비난합니다. 나는 밧세바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일이고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남자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여자 탓으로 돌립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안 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우리아는 알고 보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트란스요르단에서 몇 달간 전투를 벌였다가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임신을 덮어두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서 아내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의롭습니니다. 우리아가 아내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아가 “하나님의 궤가 전쟁 중에 장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동침하겠느냐” 고 하기 때문입니니다. 다윗은 그를 술에 취하게 했지만 술에 취해도 우리아는 그녀에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니다.

나단은 어린 양을 가진 사람과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고,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양 한 마리를 가져갔는지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왕을 꾸짖습니다. 선지자는 왕을 견제합니다. 그러면 대개 일어나는 일은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왕은 선지자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왕들은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발하지 않은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과 시내산 백성 사이의 언약, 이 조약, 이 맹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선지자는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으셨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나이다”라고 말하는 검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송사하는 변호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의회,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왕과 선지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입니다.

다윗의 반응: 회개

그래서 Nathan은 David에게 가서 그에게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David는 매우 화가 났고 Nathan은 말했습니다. “David,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예요. 당신은 이 남자가 사랑했던 작은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데이빗 지금 아내가 몇 명이나 있나요? 당신은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데이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예요.” 네이션은 좋은 사람이예요. 다윗은 나단을 때리지 않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 데이빗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안겼느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주었노라 이 모든 것이 너무 적었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은총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소유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데려다가 네 가까운 이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아내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다윗의 아내들을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범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첩을 범할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너희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그러자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나단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들을 크게 멸시하게 하였으니 당신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태어날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에 반대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며 자기 집에서 땅에 누워 밤을 지냈습니다. 집의 장로들이 그 옆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키려고 했으나 그가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금식하고 있으며 어떤 음식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칠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종들이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다윗에게 말하여도 그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자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 종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나요?’ 그가 ‘예’ 라고 물었고 그들은 ‘그는 죽었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David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옷을 빨고 화장수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그들은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그는 먹었습니다.” 이제 그의 하인들은 모두 놀라서 “잠깐만요. 우리가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애도 과정인가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에게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더니 아이가 죽었으니 일어나서 먹느냐?’

”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나는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로 가겠 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다음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모* (솔로몬).

회개의 단계

그래서 저는 회개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 중 일부를 인식하게 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먼저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나요?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아내를 놀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점점 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아내가 화를 내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계속했고 그녀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나는 이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내가 그녀를 정말, 정말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아네트, 사과해야 해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질문: 그게 무슨 사과인가요? 그게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사과인가요? 그게 최악의 사과 같나요? 당신은 그녀가 과민반응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정말 바보같네요. 그것은 전혀 사과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모욕입니까? “너가 그렇게 느끼다니 유감이다.” “과민반응을 한 건 바로 너야, 진정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했고 그것은 틀렸다” 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녀가 화를 낼 정도로 그녀를 부추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건 잘못 됐어. 당신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했고 그것은 틀렸다” 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과를 도말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는 당신이 말할 때에 의로움을 입증하시려는 것입니다. 확실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제 그가 “하나님, 제발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왕에게서 성령을 빼앗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건 틀렸어요.”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랬고 그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이다. 우리는 '나' 와 '나' 에 초점을 맞춘 매우 자기애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동정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서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한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용서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실 내가 당신을 사랑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질문: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즉, 이것은 그녀와 그녀의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방금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나요? 문제는 그녀가 자신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칼을 꽂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외부의 감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며,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난 애초에 널 사랑한 적 없어” 처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사과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한 말은 정말 사악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랬어, 그건 틀렸어” 라고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그다음 “내가 그랬고 그게 너에게 상처를 입혔어” 라고 상대방의 피해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 고 말합니다. 즉, David는 이것이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 내가 뭔가 잘못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David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 존재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 있는 나입니다 .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나다.” 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는 이 특이한 행위는 단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핵심까지 반영합니다. 나는 핵심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나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핵심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깨닫는 때입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단계는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David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합니다. 질문: 이 진술은 항상 사실입니까? 다윗은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이다. 시에 과장법이 있나요? 과장법이란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한 과장, 과장이다. 시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시에서 온갖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나요? 그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빼앗아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나요? 그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면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져서 “내가 오직 당신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그가 밧세바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죽고 우리아가 죽은 것을 봅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시적인 표현이네요 . 이는 그가 우리아에게 한 일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과장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인구가 34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친 학생 중 한 명은

이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를 둔 멋진 아내가 있었고, 아마 모두 10살 미만일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멋진 아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갔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가서 그의 설교를 들곤 했습니다. 어느 주에 그들은 그가 교회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앞에 일어나 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언제나 회개를 의미하나요? 아니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눈물은 기만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경우는 합법적이었고, 그는 잡혔고, 그는 교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었고, 교회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약 2주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개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잡힌 것을 회개했는데, 회개하면 아내와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2주 안에 다시 복구되나요? 신뢰, 신뢰를 깨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순식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오랜만 *이다*. 질문: 그에게는 자녀와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할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 사람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일어나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좋았고 그와 함께 1~2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 후엔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게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 구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가르쳤는데 너는 왜 그걸 배우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그를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제가 그 사람과 그렇게 헤어졌나요? 내 대답은 아니오 야. 이제 '1단계' 원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쪽에서 정말 잘 작동합니다. 내가 여기 가장자리에 있다면, 0.5인치만 가면 여기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0.5인치도 안 되는 크기이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한 단계 원칙을 사용합니다. 나는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나는 얼굴에 쓰러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기독교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동정심이 많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회개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정결의 능력: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면 내가 정결하리라.” 당신은 죄를 짓고 그것이 더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름다운 구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당신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살인한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밧세바와 관계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에 쓴 것입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의 최고의 시편 중 하나인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그는 깨어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안이 철저한 교도소에서 일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남자들 중 상당수가 살인자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생각뿐이었어. 그는 아마도 25년,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19 세 때 누군가를

살해했습니다 . 그는 지금 감옥에서 나왔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남자는 25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이제 나이가 더 많아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은 Allen Naskew 였습니다 . 게리 인디애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팔고 마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경건한 동료 중 한 명은 딜러였습니다.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변기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뭔가 냄새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조롱하곤 했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중대한 죄를 지은 후에도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회하는 사람이나 상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끼며 여러분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에 계십니다. 그는 부서진 물건을 가져다가 고쳐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이들도 천국에 가나요?

데이비드에게 돌아가서: 아기들이 천국에 가나요? 이제 이 질문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7일 후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아기들도 천국에 가나요? 12장 23절,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그를 다시 데려오겠느냐? 내가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도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문제는 유아가 죽는 것에 대해 성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기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나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다윗 시대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을까요? 그때는 아기를 많이 잃었나요?

지금 우리는 많은 아기를 잃나요? 옛날에 나에게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넷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우리에게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정말 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였거든요. 마침내, 우리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생길 것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슬래셔 영화 같았어요. 피는 어디에나 있었다. 내 아내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빨간색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갔다. 나는 차로 달려갔다. 평생 그렇게 빨리 운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우리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유령처럼 하얗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나도 보험이 있어서 응급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확성기를 통해 “생명 징후가 불안정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vital”이 “생명!”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 징후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신성한 암소-- 그녀가 죽을 것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빨리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살려주셨고 그들은 그녀에게 많은 양의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유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가? 나는 천국에 가면 어떤 아이가 와서 “이봐, 늙은이!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런 유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나는 이것의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추측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아기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받았습니다. 아기는 인간이므로 아기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매사추세츠에 있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모두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믿나요? 아기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이러한 논증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유아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나는 다른 방식으로 논쟁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서 기억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아기가 그것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7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내용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인용됩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만큼 충분히 알면 응유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가 “부유와 꿀을 먹는” 특정 단계에 도달하면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책임의 시대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시점 이전에 아기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기는 아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는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두

살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은 실제로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더 일찍 알고,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15~16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다윗이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있었더니” 라고 말한 것이 시적인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법인가요? 나는 시가 필연적으로 교리적인 진술이 되도록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된 또 다른 구절은 창세기 18장 25절의 “온 땅의 심판자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입니다. 결국 누가 전화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그를 믿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솔직히 데이빗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살 이전의 모든 유아는 무죄하므로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이 아기를 죽일까요? 어쨌든 많은 문화권에서 아기를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살

이전의 모든 아기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안다면 아기를 죽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그들은 그것을 십자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에 가서 유아를 죽일까요? 낙태 클리닉은 “대중 전도” 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기들을 모두 천국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낙태 클리닉을 승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타락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는지 여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단서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겠어, 내가 지어낸 거야 나는 단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결국 유아를 죽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큰 의문점이 있습니다. Hildebrandt가 방금 그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함

계속해서 David를 살펴보겠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범한 또 다른 죄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하사 그들을 치시며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보내어 백성을 조사하게 합니다. 나에게 흥미로운 점은 역대상 21장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역대기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역대기는 열왕기와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총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총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열왕기에서? 하나님. 역대기에서 누가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권유했습니까? 사탄. 아시다시피, 유일신론자로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가? 악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권자이신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저기에는 사탄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욥에게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당신도 여기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가 하시는 일은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의 수를 세게 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을 내리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악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그것이 자신의 죄였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용사들을 계수한 후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꽤 나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삼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인지, 석 달 동안 적들로부터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삼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염병이 오면 그것은 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고르겠다.” 적들이 석 달 전에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이 천사는 기본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 나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 다윗은 이 천사가 아라우 나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 하나님은 다윗에게 “ 아라우 나의 타작마당을 사라 ”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의 높음과 낮음을 가리킨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하던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백성을 심판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두시기로 선택하실 바로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에게서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 솔로몬은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로 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멋진 반전입니다.

학생 : 다윗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대답 :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다윗이 지은 죄를 백성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을 벌하실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만 심판의 수단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왕국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위에 거품을 놓는 것을 보셨나요? 솔로몬입니다. 지금은 일이 잘 진행되는 왕국의 거품 같은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11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Shlomo* *이지/만 Shlomo*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Shlomo” 에서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듣게 됩니까? *샬롬*.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 “평화” 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대기를 읽지 않았지만 역대기는 다윗이 혈통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여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금은을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 나의 타작 마당을 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준비를 하고 저축하고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도 부자였습니다. 사울-다윗-솔로몬 시대를 “연합 군주제” 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과 다윗 아래서 하나로 연합되는 때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4가지 날짜를 학습합니다. 다윗의 연대는 기원전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이고, 솔로몬은 다윗보다 40년 후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세 왕 아래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오면 솔로몬은 생애 말기에 꽤 불쾌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왕국은 실제로 남북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러한 권력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는 아도니야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야는 솔로몬의 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제 학깃의 어머니를 둔 아도니야가 나서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쯤 되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앞서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묻지 않고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잘생겼고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이 되려면 잘생긴 것이 도움이 되나요? 예. 이 남자가 정말 잘생겼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결코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 중 하나일까요? 데이비드는 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이 아이를 간섭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리적으로도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높이가 약 2700피트이다. 감람산과 다윗성 사이에 기 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 사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중앙 계곡이라는 또 다른 계곡이 있고 서쪽에는 힌놈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En-Rogel (*en*은 Rogel 의 "봄"을 의미함) 이라는 두 개의 샘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아도니야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자기 소년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엔로겔 로 내려와 거기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데려가고 여러분은 다른 샘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도시와 가깝습니다. '기혼' 샘이다.

히스기야의 터널과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은 성 바로 옆에 솔로몬을 알릴 예정이고, 아도니야는 더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리는 솔로몬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선, David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너무 늙어서 더위를 못 타죠. 그래서 그들은 아름답고 멋진 젊은 여성인 아비삭 이라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데이비드와 함께 잔다. 그렇다면 나단은 밧세바에 가서 “다윗이 너무 정신이 없군요. 다윗이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야가 여기 아래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은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서 벗어났고

밧세바는 솔로몬을 위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윗과 이야기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 3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왕 앞에 절하여 이르되 내 주 다윗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이르되 사독을 부르라. ”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브냐 와 유다를 데리고 내 노새를 잡아라.” 그의 왕실 노새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려고 합니다. 당신은 왕의 노새를 타고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노새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 왕이 될 또 다른 왕에 대해 말해보세요.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당나귀, 즉 왕의 노새를 탈 예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어려움

열왕기상 1-11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솔로몬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만 사실 솔로몬 잠언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이제 나는 솔로몬을 많이 공부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마침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1장에서 솔로몬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공식적으로 말할 때 , 왕으로서 말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배우시나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배우시나요? 데이비드를 잠시 공부했는데 그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데이비드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의 기복을 보았고 그가 사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았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는 그를 더 많이 연구했지만 그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이야기에서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말할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왕으로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중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야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까?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합니까? 아니요. 모든 음모는 Nathan과 Bathsheba 및 다른 사람들이 수행합니다. 솔로몬은 왕의 당나귀를 탔습니다. “야, 나는 왕이 되고 싶어, 나로 왕의 당나귀를 타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소매에 걸치고 있는 “진취적인” 캐릭터가 아니며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조언

이제 다윗은 2장 2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나요? 네, 당신은 그 말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힘써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라’ 거기에 흥미로운 것은 ‘힘’이다. 이 구절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강하고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 우리 문화에서 남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길을 따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키라.” 그러면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제 일부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JEDP 자료를 사용하여 150년 동안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나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 [왕조]을 건축하리니 네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는 말씀은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압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지라” 라는 이야기의 변화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네 자손이 자기 생활을 지켜보고 신실하게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후손 중 일부가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것입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아.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잘못된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은 다윗과의 언약이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f”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왕좌에 앉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David와 관련된 “만약”이 있고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은 그들의 순종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그것에 참여할 것입니다.

David의 히트 목록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 “그래, 솔로몬, 너는 왕국을 깨끗이 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솔로몬에게 내가 부르는 “히트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히트리스트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윗 왕국의 다른 누구보다 그의 손에 피를 더 많이 묻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 .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고 요압은 냉혹하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아, 나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다.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요압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David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아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나요? 요압과 다윗은 좋은 친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싸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David는 그의 친구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으므로 다윗은 솔로몬이 그 일을 처리하여 그의 머리가 평안히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요압은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솔로몬은 이르되, 들어가서 그를 죽이라. 나는 그 피가 내 왕국에 묻히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시므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마이너 캐릭터입니다. 시므이 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 너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도망칩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뛰어 넘을 때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마침내 당신에게 닥칠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 당신은 사울에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이 약점을 가지고 아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비를 베풀어 시므이를 살려 주지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였으니 일을 잘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는 “시므이야 내가 네 생명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므이의 종 중 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시므이의 종이 도망칩니다. 시므이는 무엇을 하나요? 시므이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의 뒤를 쫓았는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당신에게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고 말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제거됩니다.

아도니야 는 어떻 습니까? 아도니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요르단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것이 마치 왕권을 위한 연극인 것처럼 겁을 먹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이르되

내가 아비삭을 원하노라 하니 데이비드와 잤던 그 예쁜 젊은 여자를 기억하시나요? 아도니야는 이제 그녀를 나만의 것으로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동침했던 여자와 동침하기 위한 왕권을 위한 연극인가? 그러므로 아도니야가 아비삭을 원한다고 말할 때 그는 왕권을 얻기 위해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야에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야를 데리고 나갑니다 . 솔로몬은 이 세 사람과 함께 왕국을 평화하고 더욱 순결하게 만들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치적 음모를 중상모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제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그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을 받아 그를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지혜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꿈을 꾸기 전부터 지혜로웠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6절에 “솔로몬은 네 지혜대로 그(즉 요압)를 대접하라” 고 했습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자기

아들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을 꾸기 전입니다. 그러면 2장 9절로 넘어가면(다시 꿈 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 (이번에는 시므이를 말씀하심이니라) 너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할지 아시리니 그의 백발의 머리가 피를 흘리며 음부로 내려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솔로몬은 꿈을 꾸기 전부터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서 그들의 은사를 취하고 그들의 은사를 강화하시는가? 그 이전에는 솔로몬이 바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곳은 바로 이곳 기브온의 제사 장소(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할지 물으시니라 주세요.’” 이제 지니가 병에서 나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것에 대해 현명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처음 두 가지 소원을 빌고 세 번째 소원에서는 더 많은 소원을 구합니다. 여기서 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되 이는 그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니라 내 아버지 다윗 왕이 신실하였으므로 당신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그러다가 조금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나는 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 여기 주의 택하신 백성 중에 있으니 큰 백성이요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사오니 주의 종에게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왕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구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봐요, 솔로몬, 당신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네게 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꾸 꿈은 그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자신은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 이것이 솔로몬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지성과 이 겸손 사이에 긴장이 있을까요? 당신이 아는 대부분의 지식인은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이 밝으면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은 밝으면 교만해집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나는 어리지만”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에게는 이미 아이와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삶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미 한 살 된 아들이 있고 암몬 여인의 아내 도

있습니다 . 그 아내는 유대인이 아닌 암몬 사람입니다! 11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에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있었는데 그들이 그의 마음을 그릇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생애 말기에 그가 이 모든 아내와 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꿈을 꾸기 전, 즉 왕이 되기 전, 곧 왕이 될 무렵에 그에게는 암몬 자손의 아내와 한 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들은 41세였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이 한 살이었고 꿈 당시에 암몬 여자였던 아내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나중에 11장에서 아내들의 문제에 대해 말해 주지 않습니다. 내러티브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이제 부,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를 좋아하는가? 그런데 학계나 전국의 대학에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교수들이 많나요?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는 열왕기상에 와서 솔로몬이 이 모든 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유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여기에 들어오면 그는 이 구절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흥미로웠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나와 함께 일했던 많은 학자들이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축복하셨다” 고 말합니다. 부(富)는 나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 읽어야 한다. 이제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열왕기상 이야기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 솔로몬은 이 금과 은을 모두 갖고 있었어. 아,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부를 얻었는지 아시나요? 그는 사람들의 일광에 세금을 부과했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왕들은 어디서 돈을 벌까요? 그들은 항상 같은 곳에서 돈을 얻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는 솔로몬이 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는 그가 1%였기 때문에 99%를 지배함으로써 그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모든 배움을 이해합니까? 나는 당신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해석은 내러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마르크스주의자는 지혜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 지혜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른 사람에게서 부를 빼앗는 것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워”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신이

읽는 방식과 꽤 다른 건가요?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방법인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재물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재물은 다 나쁘다"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장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장수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승리

이제, 새로운 리더가 취임하면, 새로운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다윗은 기름부음받은 왕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다윗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무엇을 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까? 솔로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전투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의 전쟁에 관해 읽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승리는 지혜로운 승리입니다

두 매춘부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있는 걸까요? 두 매춘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춘부인 두 여자가 있었는데, 각각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밤에 아이 위로 굴러가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질식시키거나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밤에 자기 아이, 즉 죽은 아이를 가져다가 다른 여자의 가슴에 안겨 주고 나서 착한 아이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깨닫는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를 첫날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기들은 다 닮았나요? 그게 사실인가요? 모든 아기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말한 것과 그녀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기야, 아니 내 아기야” 등등. 두 여자가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칼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 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각 여자에게 그 절반씩 주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갖게 될까요? 솔로몬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동정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나요?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면 내 아내는 항상 아이들 편인가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엄마는 항상 아이들 편이에요.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둘로 나누세요. 진짜 엄마는 아기를 둘로 나누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 그냥 살려두라고 말한다. 이제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그녀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진짜 엄마에게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이 두 여자로부터의 그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지혜의 승리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잠언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 기자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거의 절반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썼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개를 말하였다.”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 몇 개나 있나요? 약 375개입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썼는데 우리는 단지 375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쓴 잠언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1005번이에요.” 그들은 솔로몬의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넣고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솔로몬의 시편에도 시편이 두 편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그에게 헌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아가’가 아니라 ‘아가’입니다. 어쨌든, 그의 시편 번호는 1005입니다. 열왕기상 4:33, “그는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식물의 생명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 동물, 파충류,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세계 왕들이 보낸 그 지혜를 들으려고 각방에서 사람들이 왔더라.”

바로 의 딸, 솔로몬과 잠언

내가 정말 시편과 잠언을 좋아하고 솔로몬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 당신은 여기 Gordon College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독특하며 해설에서는 결코 읽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뒤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큰 물음표. 힐데브란트가
 이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므로 여기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 뭔가가 나를
 괴롭힌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누가 계속해서 이야기에 등장하나요? 이
 여자는 파라오의 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 기브온에서 꿈을 꾸기
 전, 3장에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전혀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로의
 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 관한 이 구절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9장 24절에 가보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얻은
 아내에 관한 구절입니다. “바로왕의 딸이 다윗 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니라” 솔로몬은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집트인이기 때문에 성전 지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특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1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내들의 명단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왕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아내들도 다 있지만 그녀는 특별해요. 이 구절에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중 상당수는 정치적 결혼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어떻게 묘사되니까? 잠언 1-9장에는 지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여자로 묘사됩니다. Woman Wisdom과 Woman Folly 의 비교 입니다 . Woman Folly는 청년을 유혹하려고 하고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Madame Wisdom과 데이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혜 부인은 여자입니다. 잠언에도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은 솔로몬의 전 생애에 걸쳐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금과 백향목 등으로 입혔습니다. 잠언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누가 성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해서 약간의 분노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녀를 위한 별도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잠언 22장을 보면 이집트의 아메네모페 의 잠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인 이 아내와 교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녀가 이집트의 지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세계 각지에서 속담을 모으고 있다가 애굽에서 아내에게 가서 “저 아래에는 어떤 잠언이 있느냐”

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그녀는 애굽의 지혜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잠언이 솔로몬을 통해 매개된 바로의 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꽤 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며 솔로몬이 그 잠언을 편집하였지만 아마도 그는 바로의 딸과 강한 교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열왕기상 이야기에서 강조됩니다.

그런데 잠언은 어떻게 끝나나요 (31장). 그것은 고결한 여성인 "VW"로 끝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의 딸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스트레칭입니다. 거기에 큰 물음표를 붙이세요. 거기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성전

성전 건축: 8장,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조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그들의 역사를 조직합니다. 우리에게서 BC(그리스도 이전)와 AD(우리 주의 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제1차 성전 시대" 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제1차 성전시대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이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2성전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2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로마인들은 제2성전을 AD 70년에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를 제1성전시대와 제2성전시대로 구분합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성전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레바논으로 올라갔습니다. David는 실제로 Hiram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Hiram으로 가서 "히람, 나는 레바논 백향목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iram은 "이런, 우리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 중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목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할 일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다에 던지고 그것을 오늘날의 텔아비브(혹은 옴바)로 띄운 다음 옴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레바논 백향목을 지중해에 던져서 이스라엘로 띄워 보냅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일종의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삼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바위에 입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8장 27절에서 헌납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성취라고 그는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계시겠느냐?"

하늘들이라도,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당신을 모실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이다. 솔로몬은 아직도 사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성전은 하나님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 하나님이시니 “하물며 이 성전이라.” 그래서 솔로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성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머리가 너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꽤 현명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명성: 시바의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그녀는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세바)의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보기 위해 아마도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한 번역판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그 여자가 숨이 막혔다” 고 말합니다. 그녀는 “솔로몬 당신은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모든 것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명해요.”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솔로몬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바 여왕과 히람처럼 솔로몬을 자랑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 열광합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의

표식인가요?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표이다.

솔로몬의 어리석음: 여호와를 떠나는 것

자, 솔로몬의 어리석음,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장은 그것을 저장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타국인 아내와 결혼했고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이 암몬 여인과 결혼했고 기브온에서 지혜를 얻기 위한 꿈을 꾸기 전에 그는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시점까지 이 여자들을 모두 구출해 낸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였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데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니라... 솔로몬이 늙으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치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았느니라. 그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신 몰렉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동쪽 산에 그모스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불태웠습니다. 솔로몬은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의 신 그 모스에게 아이들을 불태 왔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 칼빈주의에 빠져 있었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항상 구원을 받거나 성도의 견인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까?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생애 말년에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노인이 되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아주 아주 보수적인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 우리의 마지막 대화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에- 하느님, 에- 하느님을 적어도 5분 동안 30번이나 말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그의 결혼 생활을 정말로 망쳤습니까? 그는 그 일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0년, 30년이 지나면 나는 그렇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돌아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기로 가노라.”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과연 누가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피터가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겸손이 좋은 것인가? 입니다 .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마음이 방황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알았어, 목요일에 보자.

이것은 구약 역사, 문학, 신학 과정 25번 강의인 Ted Hildebrandt 박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짓고 솔로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Ted Hildebrandt 가 대략적으로 편집함